連載 栽培教室

94신규회원을 위하여…

산수유 ＝ (山茱萸)

학명：Cornus officinalis Sies et Zucc

약초명：山茱萸 Corni Frutus

성분：果肉에 morroniside' loganin' iridoid配糖體를 含有한다.

(1)性狀

庭園에 심어서 봄의 先驅者로 觀賞할 수 있는 落葉이 되는 濶葉小喬木이다. 나무의 높이는 3m 정도 크며 잎은 어겨(對生)붙고 달걀꼴 또는 둥근꼴로서 잎가에는 톱니가 없으며 잎 끝이 날카롭게 생겼다.

잎 뒤의 어깨 맥에는 갈색의 잔털이 密生되어 있다.

꽃은 3~4월 잎이 나오기 전에 결과지 끝에 산형화서의 노랑꽃이 핀다.

10월경에 둥근꼴의 漿質의 붉은 核果가 많이 익는다.

(2)栽培法

1)栽培 適地

비교적 耐寒性이 강한 식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南部地方의 따뜻하고 햇볕이 잘 쪼이는 곳이 잘 되며 특히 이른 봄에 꽃이 피어 授粉作用을 하기 때문에 西北風이 막힌 傾斜盆地로서 寒波가 없는 곳이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는 곳에서는 꽃은 많이 피지만 落花되고 結實이 되지 않는다. 참고로 말하자면 속담에 『산수유는 동리집 주변에 심어 煙氣를 풍기지 않으면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그 이유는 일반 果樹 중에서도 이른 봄에 꽃이 피면 霜害를 입어 落花하게 되니 이런 경우에는 새벽에 重油나 나무를 태워 연기를 풍기면 空中의 공기가 고란하여 霜害를 막을 수 있었다. 山茱萸도 때로는 이른 봄에 서리에 의한 凍害를 입게 되니 規模的으로 재배할 때는 栽植할 立地條件을 고려하고 防霜에도 노력할 것이다.

土質은 腐埴質이 많은 砂質壤土 또는 混礫壤土에 잘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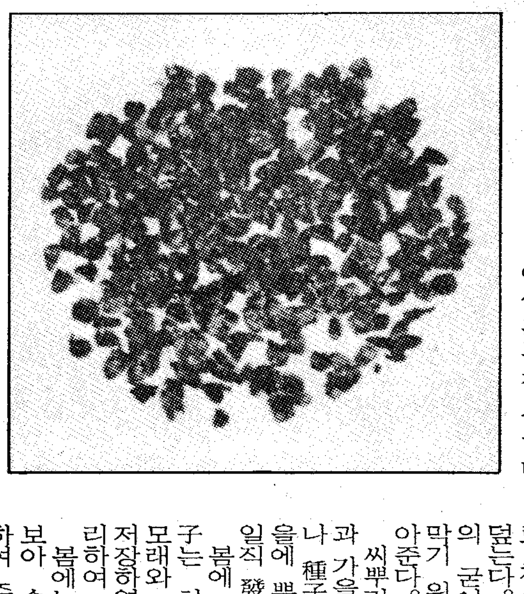
2)種子 處理

山茱萸 種子는 단단해서 發芽가 늦으므로 다음과 같이 씨뿌리기 전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

가、擦傷法：種子 겉질이 단단해서 發芽가 늦으므로 약 10배의 굵은 모래와 섞어서 절구에 찌르면 겉질이 얇아져서 水分을 잘 빨아들여 發芽가 빠르다.

나、搗精法：처리 목적은 擦傷法과 같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많은 양의 種子라면 보리방아 찧는 정미기에 넣어 몇번이고 搗精하게 되면 단단한 겉질이 얇아진다. 이때에 주의할 것은 核의 질이 얇아져서 손으로 만지면 말랑거리는 감이 있으면 되는데 種仁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도정할 것이다.

다、黃酸 處理：山茱萸씨는 단단하기도 하지만 납질이 있어 흡수를 잘 하지 못하므로 發芽가 늦어지니 黃酸에 처리하였다가 흡수작용이 빨라져서 播種하며 發芽가 잘 된다.



〈山茱萸〉

3)繁殖및 育苗

繁殖은 주로 實生繁殖을 하며 꺾꽂이법도 가능하지만 實用化되어 있지 않다. 育苗한 苗圃는 通風이 잘 되고 햇볕이 잘 쪼이는 東南向 適濕한 砂質壤土로서 排水가 잘 되는 곳이라야 한다. 苗床은 잘 썩은 堆肥、過石、깻묵 및 草木灰 등 적당량을 넣고 갈아서 흙과 잘 섞은 다음 1주일쯤 두었다가 넓이 120~150㎝의 두둑을 좀 높이 만들고 흙을 고른 후 撒播로 뿌리거나、이랑 사이 15~18㎝ m로 하여 골을 치고 條播한 다음 種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草木灰를 뿌리고 다진 다음、그 위에 흙을 채로 쳐서 1.5㎝정도 덮는다. 그리고 겉흙의 굳어짐과 건조를 막기 위하여 짚을 깔아준다.

씨뿌리는 시기는 봄과 가을에 할 수 있으나 種子처리한 후 가을에 뿌리는 것이 봄에 일찍 發芽할수 있다.

봄에 播種할 때 種子는 처리하지 않고 모래와 섞어서 흙속에 저장하였다가 봄에 처리하여 뿌릴 것이다.

봄에는 건조관계를 보아 수시로 관수를 하여 주는 것이 發芽가 잘 된다.

4월 하순경에 發芽하게 되는데 깔아주었던 짚이 두껍게 깔아 주었으면 다소 걷어 주고 그대로 두는 것이 發芽 후의 건조를 막을 수 있었다.

4)定植

보통 苗圃에서 2年生 苗를 옮겨 심는데 1年生 苗도 生育이 좋고 건실한 것은 옮겨 심을 수 있다.

2年生 苗는 키가 120~150㎝정도 된다. 심는 시기는 봄과 가을에 심으나 어느 때 심어도 活着이 잘 된다.

심는 장소는 심기 2~3주일 앞서 미리 깊이 45㎝、넓이 사방 45㎝정도로 파서 진흙과 잘 썩은 堆肥나 약간의 過石을 섞어서 밑에다 넣고 가볍게 발로 밟고 그 위에 흙을 쌓아 두었다가 심을 때 밑거름이 닿지 않을 정도로 파서 苗木의 뿌리를 잘 펴서 심는다. 이상과 같이 심게 되면 처음에는 노력이 들지만 심은 후 生育이 잘되어 결과적으로 유리하다. 심는 거리는 360㎝ 간격으로 심는 것이 좋다.

5)肥培 管理

定植한 후에는 自然形으로 길러간다. 主枝가 꺾이는 일이 없이 길러서 圓錐形으로 정지할 것이며、나무가 자라서 가지가 密生하게 되면 間伐할 정도로 그친다.

거름은 매년 가을 또는 이른 봄에 바퀴모양 거름주기(輪狀施肥)를 한다. 즉 山茱萸 그루를 중심 삼아 主枝의 밑둥의 지름 8~10배 떨어진 곳을 파고 堆肥、깻묵 등을 주고 묻어 줄 것이다.

施肥量은 자람에 따라 增施할 것이며 開花 結實하게 되면 인산과 칼리질 거름에 치중할 것이며 웃거름으로 黃安 등을 준다.

施肥하는 방법과 거리 역시 자라감에 따라 다르게 해야 한다. 큰 나무를 옮겨 심으면 2~3년간은 開花 結實의 성적이 나쁘다.

(3)收穫·調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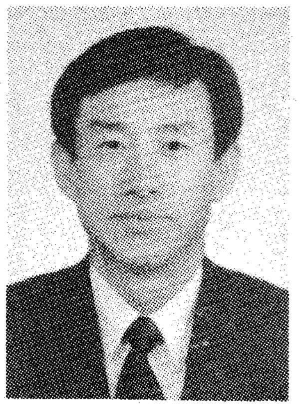
定植 후 보통 7~8년만에 開花 結實을 하게 되지만 從來式으로 심으면 生育과 開花結實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상기한 바와 같이 苗木을 심을 때 노력과 경비가 다수 더 들더라도 깊고 넓게 파서 밑거름을 주고 심으면 뿌리 발육이 잘 되어 生育이 왕성하여 結實期가 빨라지는 것이다.

가을에 열매가 빨갛게 익으면 이것을 수확하여 살짝 찌거나 그대로 씨를 받은 후 果肉만을 햇볕에 말리어 조제 저장한다.

乾材 후 7~8年生은 1주당 열매의 수량이 말린 것으로 600~1、200g에 불과하지만 每年 수량이 증가되어 20~30년 후에는 生育狀態가 좋은 것은 株當 24~30kg 정도를 수확할 수 있다.

신임회장인사

국제개방화 시대 경쟁력있는 생약 개발
생산자 부가가치 있는 고품질 생약 생산



◇李鍾容 會長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불초 미력한 본인이 본협회 회장에 선임되어 영광이기에 앞서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창립25주년을 맞는 본협회는 국내 유일의 생약생산자 단체로서、생약재배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선에서 생산활동에 진력하신 회원 여러분들에게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U·R의 타결 이후 수입개방화 물결은 생약생산에도 막대한 타격을 주게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재배하는 생약의 원가도 많이 높아지고 채산성이 악화되므로써、회원 여러분들의 생약생산 활동에 많은 위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일부 품목의 과잉 생산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계시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생산 의욕을 잃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들이 많은데 대해 본협회 회장으로서 책임과 아픔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도전과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손을 놓고 가만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는 국제 경쟁력이 있는 생약을 개발해야 합니다. 원가를 절감하고 고부가가치 생약을 개발하여 계획 생산을 계도한다면 절대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수급조절의 한도에 맞춰 계획 생산하여 과부족이 없도록 하는것도 본협회의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협회가 지난해 계획 생산하여 일본에 수출한 삼도시호는 162톤이었고 올해에도 1백만평의 시호 재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약에 대해서도 계획 및 계약 생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5천년 역사속에서 우리 생약은 조상들의 건강을 지켜왔으며、실제 국내산 생약의 품질은 어느 외국산보다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차제에 우리 생약의 우수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생약 살리기 운동」을 전개코저 합니다.

우리 생약을 소중히 여기고 국민 모두 동참할 수 있는 운동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지난 3월25일 보사부가 고시한 「한약재 규격화」는 한약재를 규격화한다는 취지는 좋지만、본협회 산하의 생산자 회원 여러분들이나 사무소장 공판장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생산자들의 생약 생산은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들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생산자들의 부가가치를 높여주고 국제경쟁력을 키워 주기위해서는 단순 가공은 생산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내산 생약은 농산물로 규격화 할수 있도록 정부가 배려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생산자 단체로써 생산 활동에 전념해야 합니다. 또 고품질의 생약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생산자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본인은 회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협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4월 1일

會長 李鍾容

自然生 採取 (연재)

익모초 ＝ (益母草)

○과명……순형과

○속명……충위

○약용부……풀전체

1、기본：한방에서 꽃필 무렵에 지상부를 베어다 말려서 산후의 지혈 등 부인병 약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익모초라 이름을 붙게 된 것이다.

2、생장적지：햇볕이 잘드는 들이나 언덕 등이 적지이다.

3、특징：1년째와 2년째의 모양이 다르다. 1년째에는 잎줄기가 붙은 계란 모양의 잎이 달리며 잎의 밑 부분은 심장형을 이루고 있다. 잎 가장자리가 둔한 톱니 모양을 이루며 6~7매의 잎이 자라는 것으로 해를 넘기게 된다.

2년째에는 50~100㎝로 자라며 줄기는 네모꼴이며 잎은 길게 세갈래로 벌어지고 위쪽은 가늘고 긴 잎으로 변한다. 8~9월 걸쳐서 윗부분의 잎이 붙은 자리에 순형의 맑은 홍자색의 꽃이 핀다.

4、채종：성숙한 씨앗을 야생물로부터 채집한다. 시기는 9~10월경이다.

5、파종：씨앗은 4~5월경에 파종한다.

6、채취：줄기와 잎의 수확은 꽃피는 시기가 적기이다. 땅위 부분을 베어서 채취한다.

7、조제：꽃이 피었을 때 채집한 것을 햇볕에 급속히 잘 말려야 한다.

8、이용：풀 전체를 산후의 지혈등 부인병에 사용한다.